

# ‘한화 포천 화약저장소’ 절대 안된다

## 영북면 야미 2리 주민 집단움직임 예상



영북면 야미2리 주민들이 야미리 20번지 일대 폐광산 소재지에 신축하기로 하고 추진중인 화약고 건설사업이 주민안전을 무시한 살인행위라며 현수막을 내걸어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한화의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0번지 일대 철광석 폐광산 소재지에 포천 화약저장소 신축 계획에 대해 야미2리 주민들이 집단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그 추적이 주목되고 있다. (주)한화는 경기북부지역의 도공사 및 산업단지 조성등 국

가 기간 사업 추진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약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0번지 일원 철광석 폐광산 부지 1만5천평규모를 지난 8월에 매입해 ‘포천화약저장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40평 규모의 저장소 4~5개동을 설치하여 화약 및 불꽃제품류를 저장기로 했으며 파주, 연천, 포천, 가평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화약저장소가 운영중이나 단 1차례의 저장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음을 강조하며 주민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 마을 이길연 이장은 지난 8일 마을회관에서 3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한화 측이 주민동의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자 주민들이 반발,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길연 이장은 “화약고 설치하는 노인회, 부녀회, 영북면 이장협의회, 주민들 모두가 절대 반대하는 일이다”며 “한화 측에서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이장은 과거 광산지역으로 번창했던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포장도 안된 지역으로 방치하다가 화약고가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 모두 화가 나는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말했다.

(주)한화 측은 내화성 내충격성의 제품이므로 폭발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을 고려한 저장시설을 신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변 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민가와 최소 300m이상 이격하여 저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노르웨이 입양인 ‘마리안’ 어머니 찾아

## 신문·방송매체로 부모 찾기 5개월만에 엄마 품에

지난 4월 10일자 포천신문 265호(15면)에 소개된 입양아 마리안(본명 성진선, 32)씨가 부모 찾게 됐다. 당시 마리안씨의 가장 큰 소원은 ‘친어머니와 가족을 찾는 것’이라며 본지에 눈물어린 호소를 한 바 있다.

마리안씨는 1974년 4월 21일 포천군 신음리(당시 포천군청 뒤) 김기순씨 태 때문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6년 홈스테이로 한국을 방문 가족들의 소식을 수소문한 결과 포천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17일 포천시 영북면 운점의 외삼촌매에 인사차 방문한 마리안씨는 더 이상 얼굴에 그늘이 없는 환한 얼굴로 가족들과 옛 사진을 보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리안씨는 “인생의 한을 풀었다”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심정을 밝혔다.

마리안씨는 올해 4월부터 본지를 비롯해, 우리방송, 아침마당 등 신문과 방송매체를 이용해 가족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벌여왔다. 끝내 지난 15일 KBS 아침마당에 나온 마리안을 의심촌

인 서정봉씨가 얼굴을 알아봐 가족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마리안씨의 어머니 서정자(55)씨는 “당시 가정형편상 4남매를 모두 거둘 수 없어 둘째 딸을 보내야만 했다”며 “이렇게 만나지 않던 속이 다 낫은 것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딸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다”고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리안씨는 “포천에서 어머니를 찾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며 각각의 명함을 꺼내 보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지면과 방송으로 도움을 준 포천신문 김영복 편집국장과 우리방송의 김정필 PD, 전단을 무료로 만들고 배포하는데 도움을 준 연세순 포천동장,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외수리 주조까지 직접



마리안(좌측 두번째)이 가족들과 함께 운점 외삼촌 집을 방문해 어린시절 추억을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데리고 다니며 가족을 찾는데 도움을 준 김경희씨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마리안은 오는 30일경 노르웨이로 출국할 예정이며, 짧은 기간이지만 한가위를 그리던 가족 품에서 보내게 될 예정이다.

마리안은 현재 스칸디나비아항공 스텝어디스로 근무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 가정을 꾸려 현직인 남편과 16개월 된 아기와 함께 살고 있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 새터교회 허수아비들 시선 사로잡아

## 43번 국도변 ‘이색명물’ 탄생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허수아비들이 성경의 메시지와 가족들의 정성을 담아 전시되고 있다.

배후 2시간에 걸쳐 치러졌다. 경연에서는 가족 단위의 10여개 팀들이 참가해 작품을 내놓았다.

가족대항으로 치러진 이번 경연대회는 1등상에게 무지개색상의 가족회식권이 주어진다. 또 작품들은 마을 임민의 교회 뒷밭에 오는 11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새터교회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엔 미용실이 없어 포천시내까지 거동해야하는 노인들을 위한 미용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가위를 맞아 불우이웃들을 위해 20kg 쌀 22포를 준비해 나눠줄 계획이어서 주위 사람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허수아비 경연대회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신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43번국도 만세교 2리 새터마을 입구엔 허수아비들의 멋 내기가 한창이다.

만세교 2리에 위치한 새터교회(목사 박춘식)는 지난 19일 ‘허수아비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주일 오후에

보목적도 중요했지만 신도들의 화합과 친목차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허수아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모습, 다윗, 사무엘,

# ‘고인돌’ 배드민턴 클럽 飛翔

## 팀 창단후 첫 자체게임 열어



지난 19일 가산면 금현리에 위치한 고인돌 배드민턴 클럽 체육관에서 회원들이 힘찬 출발을 결의하고 있다.

19일 오후 고인돌 배드민턴 클럽(회장 김진수)이 팀 창단 후 첫 자체대회를 개최했다.

고인돌 배드민턴 클럽은 지난 달 18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클럽이다.

김진수 회장은 “우리 클럽은 가산지역에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클럽이다”며 “순수한 생활체육으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돌 클럽은 금현리에 동지를 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또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왕성한 체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재홍 부회장은 “현재 30대와 40대 위주로 구성돼 있는 회원

들의 구성을 확대시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를 맡고 있는 김연희씨는 “이 날 경기는 독수리팀과 비둘기팀으로 나눠 진행되며, 클럽 창단 후 첫 자체 경기로 회원들이 보다 가까워 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클럽 가입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고인돌 클럽은 다음달 10일 관악구 배드민턴 클럽을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팀원들의 단합을 이룰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입문의 : 김현미(011-305-6239)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 장병들이 펼친 훈훈한 이웃돕기 ‘세탁작전’

## 육군 2군수 지원사령부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탁·복욕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육군 2군수지원사령부(이하 2군수)는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세탁 봉사

에 두 팔을 걷어 부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군수 지원사령부(이하 2군수)는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세탁 봉사

에 두 팔을 걷어 부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대는 지난 여름 열린 장애인 선교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최로 한국 중앙기독교연합회(이하 중앙기) 주최로 열린 장애인 복지행사(제15회 여름산상 대성회) 시 전국의 장애인 3천여명이 사용한 약 5톤에 달하는 침구류를 군용 세탁 트레일러 장비를 대거 지원해 말끔히 세탁 건조해 돌려주었다.

수송팀 신규환(22) 병장은 “잠시동안 곁에서 수발 들어주는 일일봉사도 의미 있지만 부대의 특성을 살려 군용 세탁 트레일러로 장애인들의 이불을 세탁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인의 신분으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장애인 선교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의 집회 행사에 따른 침구류 세탁 지원 요청을 받은 부대는 즉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 체계적인 세탁봉사를 위해 봉사병력을 세탁팀, 건조팀, 수송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일주일간 순회식 세탁작전을 펼쳤다.

또 이병준 한국중앙교회 장로는 “봉사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국군 장병들”이라며 “엄청난 양의 이불을 세탁할 임무가 안 나 고민이 많았는데 군인들의 세척해줘 정말 고맙다”고 답례했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 새로운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

# 대동이 한차원 높은 도어문화를 펼쳐갑니다.

실시적 수행보다는 서극적인 사름다움과 품위를 한결 느끼게 해주는 대동만의 노하우! 현대 생활감각과 최고의 외관술 갖춘 본체도장스루 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